



지난해 '소명'을 시작으로 '위대한 침묵' '회복' '선라이즈 섀넌' 등 종교영화의 잇따른 개봉은 일반 극영화에서 느낄 수 없었던 신선한 감동을 선사하며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최근 이런 종교영화의 붐 이어가는 또 하나의 영화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10월 14일 개봉되는 영화 '할'은 2010년 상반기 영화진흥위원회 다양성영화 개봉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불교와 기독교 교리를 접목시켜 영혼,

실존, 방황, 출가 해탈 등에 관한 화두를, 유려한 영상과 해학으로 풀어내고 있다.

'할'은 불교 선종에서 그릇된 생각이나 미망 등을 꾸짖어 깨우침을 주는 격려의 소리를 뜻하는 말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형제처럼 자란 고아 우천과 미카엘은 함께 성장하면서 풀리지 않는 종교적 갈등을 겪게 되고, 신부가 된 미카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천은 출가의 삶을 선택한다.

영화는 이렇게 삶에 회의를 품고 출가한 청년 우

천과 큰스님 정승이 만나 일명 '부처수업'이라는 1박2일 화두여행을 통해 스승과 제자가 서로 문답해가며 깨달음을 찾아가는 일종의 멘탈 로드무비다. 감독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카메라에 담은 수려한 경관과 자연의 소리는 영화의 백미를 장식하고 있다. 영화의 중간 중간에는 불경과 성경의 구절을 교차시켜 보여주며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 인터뷰 - '할' 윤용진 감독

'할'은 수많은 기업과 브랜드의 광고영상을 제작한 중견 CF감독 윤용진의 첫 영화 데뷔작이다. 윤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연출·각본은 물론 촬영까지 1인 3역을 담당하는 등 영화 전반에 참여하며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윤용진 감독은 "5년 전 우연히 친구에게서 <반야심경>을 선물 받아 읽었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인터넷에서 일일이 뜻을 찾아가며 읽었는데, 그 의미를 알고 난후 40년 간 묵었던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매일 밤 불교TV를 시청하며 불교에 완전 매료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좋은 불교를 왜 사람들이 모르나 하구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교를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윤용진 감독은 그 후로 지금의 영화 '할'의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달랑 카메라 한 대만 마련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당시 로케이션 헌팅을 하지 않고 정말 오만방자하게 다녔는데, 운이 좋게도 좋은 장면들을 많이 찍을 수 있었습니다. 불교영화를 만들어서인지 영화촬영 내내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윤용진 감독은 "영화를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는 관객들 각자의 몫이지만, 이 영화를 통해 각 종교가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비하고 사랑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예공예 대표작가전 한국도자문화협회

한국도자문화협회가 주최하는 '2010 인사아트페어'가 9월 26일까지 추석연휴 기간에 인사동 소재의 14개 갤러리(지유갤러리, 토포하우스, 갤러리 이즈, 갤러리 라레트, 토크 갤러리, 갤러리 M, 우림화랑, 물파갤러리, 갤러리 가이아, 영아트, 백송화랑, 화봉 갤러리, MG 갤러리, 김영성 화랑 등) 30여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무형문화재 전향봉 명장 외 도예와 공예 분야의 대표작가 100여 명이 참가해 전통 문화 예술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특히 밸런트 이상우를 비롯한 10여 명의 연예인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이들의 작품들은 자선경매 행사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판매되고, 그 수익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전시기간에는 퓨전 국악 공연, 다도회 시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02)6104-5547

'부처가 입을 열다'

목야박물관 한국 회향전

영국 트라팔가 광장에 위치한 주영한국문화원의 초청을 받아 지난 4월 한 달간의 전시를 가졌던 '부처가 입을 열다-나는 누구인가?'가 한국에서 회향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목야박물관(관장 박진수) 특별 전시실에서 9월 30일까지 전시되며, 타국의 이방인들이 한국불교미술의 아름다움에 전사와 감동을 표했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전시기간 중에는 풍물공연, 연등 만들기, 현판 만들기 등 특별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031)885-9952-4

전통 불교문화체험교실

여진불교미술관 5주년

여진불교미술관이 개관 5주년을 맞이해 '전통 그리고 불교문화체험교실'을 마련했다. 10월 6일~11월 25일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이번 체험교실에는 △문화재로 풀어보는 한국사 △한국화도 배우는 불교 △염색한지로 만드는 공예 △도자기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전통과 불교문화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여진불교미술관은 전통문화를 계승해 문화의 뿌리를 알리고, 불교미술을 다양하게 표현해 불교미술의 역사를 재탐구하고자 설립됐다. (042)933-8466

시공 가로지른 원효와의 조우

국립경주박물관 '원효대사' 특별전 11월 21일까지

승려이자 위대한 사상가였던 원효 대사의 삶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환)은 11월 21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원효 대사(617~686)를 조영하는 '원효대사'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경주박물관이 신라를 세우고, 일구고, 가꾼 사람들을 돌아보는 기획전 '신라 역사 인물 특별전'의 첫 번째로 마련된 전시이다.

전시는 원효 대사의 삶을 다채롭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원효 대사의 독백 형식을 빌려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대기를 연표와 관련 자료를 모아 도입부에 전시한다. 또한 원효 대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승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원효 대사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진영들을 함께 전시한다.

이 밖에도 원효 대사의 사상을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저술들을 전시한다. 현재 일본 중요문화재로도 지정돼 있는 <판비랑론>(8세기)은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판비랑론>은 원효 대사가 55세인 671년에 행방사에서 지은 것으로 현재 일본 오타니대학에 소장돼 있다.

이밖에 <이장의> <보살계본지법요기> 등 국내에 없는 원효의 저술도 이번 전시에 공개된다. 특히 2009년 가을, 200여 년 만에 재발견된 '문무왕릉비편(文武王陵碑片)'과 원효 대사를 추모하기 위해 세웠던 '서당화상비(誓幢和上碑)'가 함께 전시돼 눈길을 끈다. 또한 모사본이지만 일본 고산사 소장 '원효대사 진영'과 '화엄종조사회전'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원효대사'전을 기념하고 원효 대사를 좀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강연회도 마련됐다. △9월 29일에는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의 니시아마 아쓰시 학예부장이 '화엄종조사회전' -의상, 원효, 그리고 묘에(明惠) △11월 13일에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남동신 교수가 '원효의 저술과 사상'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 진정환 연구원은 "원효 대사가 장건했다는 절은 국내에 100여 곳이 있으며, '원효'의 이름을 딴 길이나 다리 등 우리 곳곳에 원효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원효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원효 대사와 시공을 뛰어 넘어 만나고 대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효 대사는 617년 양랑군(현재 경산) 남쪽 불지촌에서 태어나 15세에 출가했다. 낭지, 해공, 보덕스님 등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특히 그의 도반인 의상 대사(625~702)와의 만남은 그의 삶에 커다란 전기를 가져왔다. 의상 대사와 함께 중국 유학길에 오른 원효 대사는 그 길에서 깨달음을 얻고 유학을 포기한다. 그 후 원효 대사는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고, 설총을 낳은 후 환속했다. 속세로 돌아온 원효 대사는 저잣거리와 주막, 기생집을 들며 대중과 함께하고 그들을 깨우치는데 온 힘을 쏟다 686년 혈사(穴寺)에서 삶을 마감한다.

원효 대사는 150여 권의 저술을 남겼으며 '한마음(一心)' '화쟁(和靜)' '무애(無碍)' 등의 사상은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으로 남아 있다.

이은정 기자



원효 대사 진영.

친환경 삼베타을선물 SET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을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蓆)사와 죽사(대나무에서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사워타을, 세안타을,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2세트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동글게 피부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사워타을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원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을

- 삼베세안타을을 물에 적신 후 얼굴 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을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